

2009 년 가을 학기
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하나님의 비밀들을 맡은 청지기들

메시지 7

구약의 예언들의 성취에 있어서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6)

성경: 사 55:1-4, 52:13, 시 110, 행 13:33-35, 엡 1:19-23, 히 5:6-10

XIX. 그리스도는 ‘다윗의 거룩한 것들, 신실한 것들’—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공훈들’이다—행 13:33-35; 사 55:3-4:

- A. 바울은 사도행전 13 장 34 절에서 이사야 55 장 3 절에 있는 하나님의 확실한 공훈들(히브리어로, 헤세드)을 ‘다윗의 거룩한 것들, 신실한 것들’이라고 번역했고, 사도행전 13 장 33 절과 35 절에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맏아들과 거룩한 분으로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자신이심을 지적한다.
- B. 이것은 확실한 공훈들이 사람들의 증인이시며 인도자와 명령자이신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심을 계시하는 이사야 55 장 4 절에서도 확증된다.
- C. 다윗의 씨이신 그리스도께서 부활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이신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셨을 때,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왕국의 실재 안에서 살고 섬기며 사탄과 죄와 죽음 위에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실재이신 하나님의 확실한 공훈들이 되셨다—42:6, 55:3, 롬 1:3-4, 14:17-18, 5:17, 21, 고전 15:45 하.
- D. 다윗의 거룩한 것들과 신실한 것들은 우리에게 대한 그리스도의 어떠한 모든 방면이다. 우리에게 대한 그리스도의 어떠한 모든 것은 그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신 하나님의 공훈이다. —에 3:22-25, 55, 고전 1:2, 9, 24, 30, 5:7-8, 10:3-4, 11:3, 12:12, 15, 45 하, 골 1:12, 2:6-7:
 - 1. 용서받는 것과 의롭게 되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공훈이고, 이러한 공훈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방면들이다—행 13:38-39.
 - 2. 구주,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고 신실한 것들, 하나님의 은혜, 영원한 생명은 모든 것을 포함한 생명 주시는 한 성령 안에 복합되어 있다—23, 32-39, 43, 48, 52.
 - 3. 모든 것을 포함한 영이신 그리스도는 이제 모든 것을 포함한 ‘샌드위치’와 같은데, 우리의 체험과 누림을 위해 그분을 먹고 소화하고 동화함으로써 이 샌드위치에 참여한다—요 6:57, 63, 3:34.
 - 4. 측량할 수 없이 풍성하신 그리스도를 소화하고 동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을 그분께 계속 열어드리고 그 영의 내적인 느낌을 따르고 반응함으로 그분께서 우리의 존재 안에 통행로를 가지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한다.
- E. 시편 51 장 1 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히브리어로, 헤세드)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공훈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라고 기도했다—참조 2 절, 6-12 절, 17-18 절:
 - 1. 하나님의 확실한 공훈들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려는 것은 그분을 죄와 부정을 위한 피의 원천으로 누리며 우리의 신화를 위해 생수의 원천으로 누리려는 것이다—슌 13:1; 사 55:1, 7; 렘 2:13.

2. 우리는 변제단(우리의 피난처이신 절대적이신 그리스도)으로 예표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이신 그분 안에 숨음으로, 분향단으로 예표된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리스도(우리의 집이신 기도하시는 그리스도)이신 그분 안에 안식함으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확실한 공훈들로 누릴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의 권익을 위해 우리를 지성소로 안내하여 우리가 거룩한 성이 되게 한다—시 84:3, 43:4 상.

F. 이사야 55 장 1 절의 ‘물들’은 영원한 언약이며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공훈들이신 생명 주시는 영이다. ‘물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마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한 방면에서만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고전 12:13; 요 7:38; 사 12:2-3; 렘 2:13; cf. 사 57:20.

1. 그리스도는 새 언약으로서 우리의 몫, 우리의 구원의 잔과 축복의 잔이다. 우리는 그분의 귀한 이름을 부름으로 그분을 우리의 구원과 축복으로 마실 수 있다—눅 22:20, 시 16:5, 23:5, 116:13, 고전 10:16 상.

2. 우리에게 ‘돈이 없지만’, 우리는 물이신 주님께 나아가 포도주와 젓이신 그분을 ‘살’ 수 있고 그분의 모든 어떠한 하심을 누릴 수 있다—사 55:1:

a. 주님을 누리는 값은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한 하심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려야 하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vv. 3, 6.

b. 우리가 모든 점에서 파산한 것과 우리가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과 아무 것도 없다는 것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과 어떤 것 보다도 나쁘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분을 생수들과 새 술과 영적인 젓으로 마시고 그분을 영적인 떡으로 먹고 그분의 말씀을 하늘에 속한 비와 눈으로 누리기 위해서, 그분을 추구하며 그분을 부르며 하나님의 넘치는 동정심과 용서하심을 위해 우리의 하나님께 돌이키고 그분께 우리 자신을 드리게 된다—1-11.

XX. 그리스도는 높여지시고 들어 올려지시고 아주 높이 되신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그 발 아래 두신 분 (만물 위에 머리가 되시어 교회에게 주신 승천하신 분) 이시다— 52:13, 시 8:6-7, 엡 1:19-23:

A. 승천하고 초월하신 그리스도는 교회에게 전달하신다(1:19-23, 3:20). 그분의 초월하는 전달은 삼일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분배하심을 포함한다(1:3-14).

1. 그러한 모든 것을 포함한 전달하심은 우리를 육체되시고 십자가에 못박히신 그리스도와 연결 뿐 아니라 부활하시고 초월하신 그리스도와 연결 안으로 이끈다. 이 초월하신 그리스도와 연결 안에서 우리는 모든 소극적인 것들을 뛰어 넘으며 그 모든 것들 위에 초월한다—21-23 절.

2. 초월하신 그리스도의 전달은 그리스도 안에 만물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삼일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도달하시고 획득하신 것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으로 주입하는 것이다—10 절, 19 절, 22-23 절.

B. 초월하신 그리스도의 전달은 또한 우리를 그분께서 그분의 승천 안에서 도달하시고 획득하신 그분의 열 두 신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하늘에 속한 사역 안으로 이끄시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이다—빌 1:19:

1. 모든 사람들의 주님—행 2:36 상

2. 하나님의 그리스도—36 하.

3. 모든 통치자들의 영도자—5:31 상.

4. 구주—31 하.

5. 대제사장—히 4:15, 7:26.

6. 변호자—요일 2:1 하.

7. 중보 기도하시는 분—히 7:25.
8. 새 언약의 중보자—8:6.
9. 새 성약의 보증—7:22.
10. 생명을 주시는 분—요 10:10 하.
11. 보혜사—14:16-17.
12. 어린양-하나님—계 22:1 하.

XXI.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공급할 수 있고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시 110:1-4, 창 14:18, 히 5:6-10, 7:25-26, 8:1-2, 참조 행 6:4:

- A.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교회들을 보살펴주고 보양하신다.
 1. 그분은 심지를 손질하고 기름을 더함으로 그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사람의 아들’이신 그분의 인성 안에서 등잔대들인 교회들을 돌보신다—계 1:13, 30:7, 참고 속 4:12-14.
 2. 그분은 그분의 신성하고 비밀한 세 단계—육체되심, 포함, 강화의 사역으로 교회들을 보양하기 위해서 그분의 가슴에 있는 금띠로 상징된 그분의 신성한 사랑이 있는 그분의 신성 안에서 등잔대들인 교회들을 돌보신다—계 1:13, 요 1:14, 고전 15:45 하, 계 4:5, 5:6.
- B. 구약의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열 두 지파의 이름을 그의 어깨와 가슴에 짊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분의 어깨(그분의 힘)와 그분의 가슴(그분의 사랑)에 짊어지신다—출 28:9-10, 12, 21, 29:
 1. 그분은 ‘하나님께 관한 일에 있어서 공홀이 많으시고 신실하신 대제사장’(히 2:17), 곧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4:15).
 2.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돌보실지라도 우리 모두는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돌봐주시는가에 관해 우리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갖고 있다. 많은 때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지 또는 어떤 것들의 이유가 무엇인지 모른다. 오직 대제사장이신 주님만이 그 이유를 아시며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돌봄은 항상 긍정적이다—롬 8:28-29.
- C. 최종적으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필요와 권익을 돌보고 계신다:
 1.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경륜 안의 목표인 하나님의 집을 향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왕상 8:48, 단 6:10.
 2. 우리가 누구를 위해 기도하든지, 우리의 기도들은 하나님의 경륜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권익, 곧 그리스도와 땅 위에 하나님의 권익인 교회를 겨냥해야 한다—엡 5:32; 6:17-18.
 3.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인 번창을 위해서 하나님을 강탈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그분의 경륜을 위해 기도하고 살며 하나님의 마음에 따르며 그분의 경륜을 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